

고이즈미 야쿠모 옛 저택

이 곳은 그리스계 아일랜드인을 조상으로 둔 영국인 작가 라프카디오 헨(1850-1904)이 구마모토 대학교의 전신인 제 5 고등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로서 근무했던 첫 해인 1891 년에 거주했던 저택입니다. 일본으로 건너와 15 개월간을 시마네현의 마쓰에에서 지냈던 헨에게 구마모토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2 번째 성하 마을이었습니다.

제 5 고등중학교에는 직원용 숙소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일본식 다다미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헨은 숙소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당시에는 월세로 매달 11 엔을 냈어야 했는데, 200 엔이라는 고액의 월급을 받았던 헨에게는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했습니다(여기에 1 만을 곱한 숫자가 현재 통화로 환산한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7 개의 커다란 다다미방으로 구성된 이곳은 하급 무사였던 아카호시 신사쿠가 소유하고 있던 저택이었습니다. 헨은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만든 신단을 집안에 설치하여 매일 아침이면 신단을 바라보며 신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헨은 자신의 저서 『Glimpses of Unfamiliar Japan(알려지지 않는 일본의 모습), (1894)』의 ‘The Household Shrine(가정 내 제단)’이라는 장에서 집안에 신단을 모시는 것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안쪽 방에는 헨이 업무에 사용했다고 알려진 책상이 남아 있습니다. 헨은 이곳에 사는 동안에는 저술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Out of the East: Reveries and Studies in new Japan(동쪽 나라에서), (1895)』과 『Kokoro: Hints and Echoes of Japanese Inner Life(마음), (1896)』는 구마모토에서의 생활을 주제로 하는 서적입니다.

헨이 살아 있을 때는 일본 문화 해설자로서 해외에 알려져 있었지만, 일본 내에서는 1920 년대에 저술한 괴담집이 일본어로 번역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